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2. 겨울호 (제7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시론 / 의약분업 원칙론의 일견 · 3

프로필/ROTC 회장단 및 임원명단 · 4

동문회소식 /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6
 회장단회의(3차) 및 고문단 모임 · 6
 교수송년모임 · 6
 신년교례 · 7
 모교에 약대발전 건의 · 7
 약대 ROTC동문회 창립 · 8
 25주년 알바가족 축제 · 10

지부별소식/ 안산지부 / 동문회에 우승기를 기부합니다 · 12
 동대문지부 / 동문회의 보물 1호 동대문지부 · 13

여동문회소식 / 화장품과 약사의 역할 · 14

동기별소식/9회 / 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9회 동기들 · 16

동기회동정/15회 / 어려움 속에서 형성된 중대약대의 전통을 기억하며 · 18
 28회 / 80학번 "은사의 날"을 맞이하고서 · 19
 25회 / 땀칠이의 꿈, 막강 77학번 · 20

문학산책/시 / 새꽃 · 21

특별기고 / 영문학... 수학... 약학..., 변덕의 여로 · 22

만평 / 한번 멋있게 달려보자구요!! · 23

별난동문이야기 / 절반은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 24

회원동정 · 26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 28

모교 · 총동창회 이모저모 · 29

편집후기 · 30



인쇄 : 2002년 1월 30일
 발행 : 2002년 1월 31일
 발행인 : 유 영 후
 편집인 : 황 공 용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대학동문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 화 : 565-1700
 팩 스 : 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기획 인체 : 유천문화사
 전 화 : (02)2263-1901대)
 팩 스 : (02) 2263-1905
 E-mail:YC1905@cholljan.net

의약분업 원칙론의 일견



김 종 성
(13회, 부회장)

**대한약사회 임원진들은 좀더 소명감에
넘친 열정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모든 약사들은 기립박수를
아낌없이 보낼 것이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선전을 당부드린다.**

큰 희망을 가지고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년반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명분론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의사·약사·제약회사·소비자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노정되었다.

정부가 풀어야 할 보험재정의 문제, 개업의의 증가로 오히려 큰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계의 아이러니, 그리고 이전의 횡령형태에서 분업 후에는 병원과 수직관계로 변화되어 기존의 동네약국이 경쟁력의 약화로 소멸내지 재편되고 있는 약국과의 딜레마 등등.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각계의 입장과 서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가?

이 부분에서는 역시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나, 금년의 선거에 따른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약사들을 상당히 불안감에 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재고약 줄이기 시위가 과연 정부나 의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또한 이런 현재 상황과 맞물린 동네약국 존립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등등의 문제를 앞에 두고 동네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점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코자 한다.

첫째,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끝까지 견지하여 임의분업론이나 분업취소론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강한 회의감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흔들리면 임의조제권까지 없어진 현재의 약사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오직 완전분업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대한약사회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으로 약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하며, 만약 계속 양보니 어찌니 하고 시의성 없는 안이나 갑론을박이나 하며 세월만 보낸다면 어느 회원이 약사회를 믿고 협조하겠는가(약품재고 처리 문제, 일반명 처방문제, 담합문제 등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둘째, 약사 서로간의 신뢰를 가지고 "나 보다는 남을 위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약사들이 자기 본인의 처방건수만 챙기면 그만이지 하는 심성을 지양하여 이웃약국, 동네약국으로의 양보의 미덕을 베풀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당신부터 할 수 있는나 는 되물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 상대가 있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약사들 먼저 합심하여 현안건을 풀은 후에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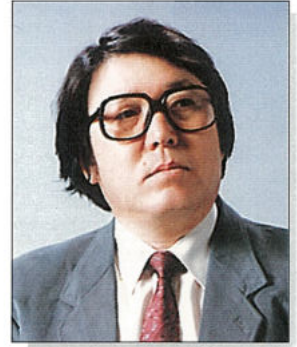
이 차제에 대한약사회 임원진들은 좀더 소명감에 넘친 열정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모든 약사들은 기립박수를 아낌없이 보낼 것이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선전을 당부드린다.

ROTC 회장단 및 임원단



〈회장〉 **노정익** (1기, 7회)
 • 서울시약 윤리위원장
 대약 부위원장 및 이사 역임
 • 현 강남태평양약국 대표



〈수석부회장〉
주왕기 (2기, 8회)
 • 강원대 약대 학장
 한국약물남용연구소소장 역임
 • 현 강원대 약대 교수



〈감사〉
박명신 (1기, 7회)
 • 용산구약사회회장 역임
 • 서울시 유도회 자문위원
 • 현 중앙약국 대표



〈감사〉
장영조 (4기, 10회)
 • 한독약품 재직
 • 현 주릭파마(주)



〈사무총장〉
손의동 (16기, 22회)
 • 미국 브라운대 의대 연구교수
 영남의대 교수 역임
 • 현 중앙대 약대 교수



〈총무간사〉
박종화 (17기, 23회)
 • 중앙대 약대 강사
 • 현 온누리건강 대표이사



〈섭외간사〉
이규삼 (18기, 24회)
 • 태백시 약사회 부회장
 서초구약사회 약국위원장 역임
 • 현 서초구 약사회 부회장



〈재무간사〉
고성권 (19기, 25회)
 • 중앙대 및 경희대 약대 강사
 중앙대 약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현 중앙대 인삼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부회장단

기수	성명	소속	기수	성명	소속
2기	임상묵	세계로약국	16기	유대식	동명약국
3기	권혁구	대학약국	17기	천경호	바이로메드
4기	류정사	유림약국	18기	김승재	그린팜약국
5기	김명우	우전약국	19기	손현우	베론약국
6기	이호섭	505대표	20기	반수호	대화약국
7기	최영호	이연제약	21기	한봉길	안산고대약국
8기	조병화	온천약국	22기	조형진	샘약국
9기	이영운	세명당약국	23기	류승렬	대응약국
10기	김선기	메디팜김약국	24기	김광식	인정약국
11기	양희익	서독약국	26기	권경민	경민약국
12기	정명진	새명지약국	30기	김락영	보람약국
13기	임태영	부부약국	31기	김찬배	바이엘(주)
14기	임경원	도매당약국	41기	전재현	(3학년 재학중)
15기	김중호	일동제약			



謹賀新年



회장단회의(3차) 및 고문단 모임



- 〈일 시〉 12월 8일
 〈안 건〉 1) 모교 약학대학 발전의 건(모교 약대교수 모임)
 2) 모교 약학대학 50년사 발간의 건(중간 점검)
 3) 2001년을 마감하며...
 4) 기타 토의사항

교수송년모임



- 〈일 시〉 12월 19일 팔레스호텔 서궁
 〈안 건〉 1) 송년회
 2) 약학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토의사항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교례



〈일 시〉 1월 8일 동문회관
〈참석자〉 박영규, 홍병석, 김영일, 유영후, 박숙자, 한석원, 임상득, 조의환, 김연희, 이규진, 권혁구, 류정사, 황공용, 강옥희, 이호섭, 서국진, 문재빈, 이규식, 김종렬, 박석동, 정명진, 박상용

모교에 약대발전 건의



동문회가 1월 16일 모교 박명수 총장을 면담했다. 김기흥, 최종목 교문과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 문재빈 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유영후 회장은 약학대학의 교수총원과 설비투자를 통하여 중앙약대가 21세기 약학의 선두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배려를 요청했다.

명예는 얻는 것보다 지키기가 힘들다

ROTC창립 40주년 기념 및 약대 ROTC동문회를 시작하며...



손 의 동
(22회, 모교교수)

‘충성!’이라는 구호소리가 귓전을 때리며 아득한 후보생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새삼 온몸으로 느끼며, ROTC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또한 뽀뽀이 흩어져 있던 중앙대 약대 ROTC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약대 ROTC 동문회 창립모임(2001년 11월 25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을 갖게 되었다.

ROTC는 “명예를 가장 우선하고...동지애를 신조로 사랑과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며...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1960년 육본내 경비국에 학도과 설치, 61년 국무회의에서 ROTC 설치안 의결에 이어 61년 1월 16개 종합대 학군단을 창설하여 1기 3,175명에게 교육을 개시한 지 어언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001년 9월 이를 기념하는 대한민국 ROTC 창설 40주년기념 오페라 ‘춘향전’을 개최한 바 있고, 11월에는 21세기 ROTC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회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다졌다.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전체는 4,617명이 임관되었고, 그중 약대는 1기(약대 7회; 이하 ROTC기수로 표시)부터 지금까지 191명이 임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직장별로 나누면 약국경영 159명, 병원 및 제약회사 근무 14명, 학교와 언론 및 기타 26명으로 밝혀졌다. 약사라는 본업 외에도 대한약

사회, 사회단체, 정치계 및 학계 등 계각층에서 다채롭게 활약하여 팔방미인으로 활약하는 분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임준비

처음에는 학교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박종화(17기), 김승재 동문(18기)과 대화하는 중 자연스럽게 후배들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다 한번 모여보자는 데 의기가 투합, 2월에 모임을 가졌는데 19명이라는 많은 동문이 참여했다. 이에 용기를 얻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왕이면 선배님들도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와 5월과 8월에 재차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많은 선배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15기 이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무진이 구성되어 적극 마무리 작업에 참여한 결과 준비위원장에 1기 노정익 동문이 추대되어 임원을 비롯한 준비위원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행사진행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감동의 도가니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중앙대 약대 출신의 ROTCian들에게 11월 25일의 밤은 짧기만 했다. 보는 즐거움과 참가하는 기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이번 창립행사는 동문들의 활발한 참여로 ROTC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1부 창립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하였으며, 2부 기념행사에는 한덕룡, 김종갑, 김일혁, 손동헌, 이광표 명예교수님과 재직중인 김기호, 허인희, 임철부, 김창종 교수님을 비롯 이도익 학장, 유영후 동문회장, 강옥희 여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참석하신 은사님, 선배님의 축사를 통해서 모임의 의의와 성격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동문회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에 화답하여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디지털카메라를 동문회에 기증했다.

3부의 중앙대 음대 이재환 교수(ROTC 17기, 중앙대 음대졸)가 이끄는 미니콘서트는 한마디로 감동과 열정의 도가니였다. 기립박수에 앵콜이 이어지는 화답의 무대는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다. 행운권 추첨에 이어 교가 제창까지 끝이 났지만 쉽게 행사장을 뜨지 못하고 오래도록 긴 여운을 가슴에 새겨두려는 듯 지방에서 어렵게 참석한 동문들을 중심으로 행사장을 몇 번이고 돌아본 뒤에야 발길을 돌리는 참석자들의 모습에서는 아쉬움마저 묻어 났다.

맺는 말

이 날 참여하신 모든 은사님들은 다 른 모임과는 색다르게 잘 되었고 미니 콘서트가 너무 특징적이어서 인상에 남았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좋은 모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치하하셨다. 노정익 회장은 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은 이제 40년만에 어루어져 서로의 기쁨을 나누었으니 명예를 먹고사는 ROTCIan으로서 이 모임이 생활의 연장으로 계속 영속되도록 서로 도와 나가자고 강조하셨다.

행사진행을 위해 화환을 보내주신 약대 동문회(회장 유영후),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 후원해주신 셀론텍 주식회사(전무 이운배), 삼진제약(상무 윤수열), 한미약품(마케팅부장 장호원), 온누리건강(사장 박종화), 수창양행(주), 동광약품(주), 그리고 기념품을 기증해주신 대성약품(사장 김재수)과 RexGene Biotech(사장 권석형)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그리고 준비해주신 임원여러분! 머리 숙여 재삼재사 감사드립니다.

충성!



동문회에 기증한 디지털 카메라

ROTC는 “명예를 가장 우선하고...

동지애를 신조로 사랑과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1960년 육본내 경비국에 학도과 설치, 61년 국무회의에서

ROTC 설치안 의결에 이어 61년 1월 16개 종합대학군단을 창설하여

1기 3,175명에게 교육을 개시한 지 어언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앙대학교 약대 ROTC 동문회 창립총회

2001년 11월 25일(일) 18:00 서울 프라자 호텔 덕수홀



25주년 알바가족 축제



박종화
(12회, (주)은누리건강 대표이사)

2001년 11월 18일(일요일) 오후, 이날 서울 시내 한 빌딩의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에서부터 10대 후반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25주년 알바가족 축제였습니다.

이 '25주년 알바가족 축제'는 알바회라는 모임에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였는데, 알바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제학교실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지도교수로는 김종갑 교수,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최영욱 교수가 교실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약 2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실험실이라고 감히 자부하는 모임입니다.

이날의 모임은 그동안 알바회에서 25년째 해오고 있는 '약제반의 날'(5월 세 번째 일요일)행사와 더불어 특별히 25주년을 맞이하여 알바회의 최고참 선배들인 60년대 학번 선배님들이 주관기수가 되어 행사 전반에 걸쳐 호스트로서 술선택 주시어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셨으며, 알바회원간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가 명실상부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대화와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알바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주관기수 선배

님들께서 알바회 로고를 아로새긴 회기와 조기를 새로 제작해서 알바회에 기증해 주셨으며, 회장단을 비롯한 전 회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알바가족 축제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영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과 강욱희 여동문회장, 그리고 이 교실 출신 박사들의 모임인 목원회 백우현 회장 등의 초청인사를 비롯하여 회원 100여명의 참석으로 그 열기가 뜨거웠으며, 초청인사의 축사에서 이렇듯 모임이 바로 우리 약제학교실과 모교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약업계의 도약에 초석이 되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축하해주셨습니다.

1부 공식행사에서는 그 동안 알바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들께 교실로부터 공로패 전달이 있었으며, 이은 만찬에서는 서로서로 오랜만에





만남 선후배, 동기들간에 즐거운 답소가 이어졌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전문 이벤트사의 사회로 즐거운 축제 한마당 시간을 가졌는데, 이 단합의 시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학번 회원이 서로 섞이어 한마음이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교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듯 72학번 김영섭 회원은 영식 김세창 군(01학번)이 재학생으로 약제반원으로 활동중이어서 부자가 가정을 떠나 상아탑에서도 한 가족이 된 것을 서로가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정성에 화답이라도 하듯 90년대 학번 동문들이 대거 30여명 이상 참석하여 짧은 피의 과위를 과시해 주었고 우리 모두는 알바회의 밝은 미래

를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알바가족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200여 회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속에서 더욱 성숙했을 알바회의 5년후, 10년후의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끝으로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 모교의 발전은 물론 약학대학 동문회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이번 행사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임원진들, 자문위원, 그리고 뜨거운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 우리 회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깊은곳에는
알바가족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200여 회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속에서 더욱 성숙했을
알바회의 5년후, 10년후의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동문회에 우승기를 기부합니다



이 범 도
(24회, 지부회장)

우리 안산지부는 80년대 초에 탄생된 다른 지부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부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역사 속에서 회원수가 60여명에 이르는 거대 동문회가 된 지부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세 분의 전 회장님들께서 우리 지부를 이끌어 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초대 회장님이셨던 최영

덕 선배님 시절에는 회원수가 열한두 명 밖에 안 되는 미니 동문회였기 때문에 단합대회나 체육대회가 있으면 전 회원이 약국문을 닫고 참가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빠져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문들은 최선을 다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하는 저력을 보였던 기억이 생깁니다.

그후 2대 회장님이셨던 김영민 선배님, 3대 회장님이셨던 이창욱 선배님으로 내려오면서 총동문회에서는 모교의 날 행사가 체육대회에서 등산대회나 학술대회 등 다른 종목으로 바뀌면서 우리 안산지부의 실력과 저력을 보여 주지 못한 채 우리 자체 단합대회로 미니축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적 여건이 한약분쟁이다 의약분업이다 해서 아주 어수선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지부

를 맡았던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우리 동문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느 동문회보다도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새 제도 속에서 열심히 적응해 가던 지난해 가을, 우리 총동문회에서는 모교의 날 행사를 다시 체육대회로 전환하고 종목도 축구, 골프, 테니스, 바둑으로 대폭 늘려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지부가 그 어마어마한 종합우승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부가 80년대 초에 탄생한 이래 처음 맞이한 종합우승은 우리지부 회원들의 가슴속에 커다란 자부심과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일조를 했던 일대사건이었습니다.

10여년 만에 개최하는 체육대회라 처음에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 참가를 보류했으나 안산지부 동문회의 발전과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에 참가한 전국지부의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으며, 또한 골프 준우승, 축구 준우승, 테니스 우승이라는 명실공히 종합우승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축구종목에서는 네 게임을 쉬지도 못하고 연속으로 뛰면서 거둔 준우승이기에 우승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우리 동문을 사랑하는 동문에, 선배 후배간의 밀고 당겨주는 끈끈한 유대관계와 우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종합우승이라는 것을 하고도 우승기가 없다는 무언가

동문회의 보물1호 동대문지부



서 명 규
(7회, 지부회장)

동대문지부는 서울에 서는 가장 오랜 지부 역사를 갖고 있다. 동문회 초기인 60년대에 동문의 결속을 위해 애쓰시던 대약 부회장을 역임하신 김상오(5회) 전회장을 비롯 오랫동안 동대문 동문회장을 맡아 선후배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선이 굵은 김원지(7회) 회장,

대한약사기우회장을 역임한 오희영(8회) 회장, 청량리역 부근에서 오랫동안 용약국을 경영하며 동문회 구심점을 이어온 용영일(7회) 회장, 그리고 중앙약대 여자동문회 5대 회장을 역임한 신정숙(6회) 동문, 동대문 약사회장을 최근까지 수행했던 김경오(19회) 동문 등 많은 동문들이 동대문 동문회를 이루어오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에는 모임에



제약이 있어 동문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회장단이 숙의하여 59명의 회원과 함께 가장 전통에 빛나는 동대문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동대문지부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서명규(7회,)
- 부회장 : 황순오(12회, 동제약국)
김선백(15회, 한신당약국)
이광석(16회, 영빈약국)
조중형(18회, 백화점약국)
김경오(19회, 영립약국)
- 총 무 : 조복(24회, 바오로약국)
- 감 사 : 신정숙(6회, 금신당약국)
박장우(9회, 설과약국)

최근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에는 모임에 제약이 있어 동문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회장단이 숙의하여 59명의 회원과 함께 가장 전통에 빛나는 동대문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12페이지에 이어서).....

빠진듯한 허전함과 섭섭한 마음을 못내 아쉬워하던 중 우리 안산지부 초대 회장님이셨던 최영덕 선배님께서 사비를 털어 우승기를 제작, 총동문회에 기증하게 되는 뜻깊은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동문

회를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최영덕 전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 가며 후배들을 독려하고 안살림을 야무지게 잘하는 김덕진 총무에게도 고맙

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체육대회 이후로 우리 안산지부가 더 발전되고 더 화기애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유영후 총동문회 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품과 약사의 역할

약국전용 화장품 펜타논 위드 팜



정혜순
(35회, (주)STC펜타논 학술
/마케팅 과장)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약국전용 화장품의 필요성 및 약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2000년 7월부터 약사법상 대상 물품으로 의약품과 유사한 체계로 관리되어 오던 화장품에 대하여 새로운 관리 체계를 규정한 화장품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화장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화장품 제조 및 수입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폐지, 화장품 제조(수입) 시설기준 완화, 화장품 증별 또는 품목

허가제도 폐지, 화장품 위탁제조(품질 검사) 범위 확대 등이다.

또 미백 제품, 주름개선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법을 신설하여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이러한 화장품법은 기존 약사법에 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로 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허위, 왜곡된 화장품을 마치 양질의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재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의약분업이라는 약국간의 커다란 외적 환경 변화와 고객의 구매 행태의 변화로 약국 경영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의약분업 하에서 약사들의 일차 역할은 고객의 질병 상태에 적합한 의약품이 처방되었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제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며,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감소된 약국 재정보 및 축소된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건강관련 아이템을 고객에게 추천하는 일이다.

다양화, 전문화된 정보속에서 살고 있는 고객들은 기존의 루트를 통해 제품을 선택하는, 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제품을 전문성, 차별성없이 선택하는 일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화장품 역시 피부를 정상화하는데 사용하는 피부 건강 아이টে으로 전문가인 약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정보 속에서 내 피부에 맞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이 약사의 추천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능성 화장품법 제정, 의약분업 실시, 소비자 행태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약국전용 화장품의 취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장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위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광고에 나오는 모델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리 만족에 의존하여 광고에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급 외제 브랜드 사용이 피부에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수입 고가제품을 사용하거나, 그냥 적당한 가격에 맞추어 화장품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자신의 피부에 맞는, 피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맞춤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극소수라는 얘기이다.

화장품은 장기적인 사용을 특징으로 하며, 정상 피부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피부는 치료의 보조 목적으로 화장품을 각각 사용하기에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피부 두께가 고작 몇 mm이고, 여기에 적용하는 제품인데 무엇이 그리 어렵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유해환경에 의해 복합성과 민감성 피부가 증가하며, 내장기관의 문제가 표현되는 곳이 피부이기에 화장품은 전문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있는 필자가 대다수의 약사님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많은 약사님들께 새로운 역할 개척을 즐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약국전용 화장품은 약국내 품목을 다각화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한약, 영양제 등 기존의 약국내 판매 아이템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사용하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아이템으로 타 약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인 <약국경영 활성화>에 여러 선후배 약사님과 동참하여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통점은 있다. 가끔씩 스스로 그 직능을 축소하는 약사님들을 접하면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다.

많은 약사님들께 새로운 역할 개척을 즐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덧붙여 약국경영 활성화의 아이템으로 약국전용 화장품을 권해드리고 싶다.

약국전용 화장품은 약국내 품목을 다각화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한약, 영양제 등 기존의 약국내 판매 아이템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사용하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아이템으로 타 약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중앙대 약대 선후배님들은 항상 진보적인 행진을 하셔서 어느 부분에서건 단연 돋보인다.

필자 또한 열린 생각으로 약국계를 이끌어가는 동문이 되도록 열심히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에는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고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졸업 37주년을 맞게되는 우리 9회 동기는 학번 4001번 강군모로 시작되는 1961년도 입학으로 인연이 맺어졌다.

현재 60안밖의 나이로 국내 130명, 해외 25명, 타계 8명, 소재불명 1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으며 특히 약사회 등에 크게 봉사하여온 동기로는 권태섭, 권혁구, 김의섭, 김정관, 김학원, 박석연, 상병준, 송명실, 양무웅, 오희영, 이규진, 조병일, 조정기, 황태선, 허룡

태섭은 지금도 장애인 결혼식 주례 등으로 지역봉사에 바쁘시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권혁구는 의료보험공단 시범병원인 일산병원 앞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대학약국을 개설하여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브라질로 이민갔던 김기희는 두 아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놓고 귀국하여 현재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삼천포의 김문우는 건강 때문에 약국을 닫았고, L.A.에서 현대약국을

쿠버에서 대형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며 여유있는 생활을 즐긴다는 소식이다.

현 동기회장인 김의섭은 여러 해 동안 중국에서 중의학을 수학하여 학위를 받고 부인과 함께 격조높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신촌 로타리에서 대형약국인 용약국을 경영하는 김창용은 분업이후 더욱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의 김창환은 씨애틀에서 광고물제작업으로 자리잡았다. 목포의 김태봉은 건강문제로 약국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오래전 약업을 떠나 건축업을 시작한 김형규는 현재 동익건설 부회장으로 아파트 건설에 열정을 쏟고 있다.

영등포에서 화공약품상, 약국 등을 하던 김홍래는 파주에서 가축약품업을 하고 있고, 화창시절 학회장을 한 노환옥은 오랜동안 당노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약국을 폐업하고 요양중에 있다.

강동성심병원 앞에서 약국하는 문영동은 분업이후 자리를 못비운다. 인천에서 보건소장하던 박두환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소식을 모르니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치동 미도약국 박성학은 동기회와 강남동문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동기회 감사인 구인약국의 박정자는 건강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항상 명랑하고 만사에 긍정적이어서 감사하고 부러운 생각이든다.

횡성군 둔내면의 광신약국 박지상은 겨울 스키시즌에 성우리조트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도록.

입학시 1등했던 배영립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마사츄세츄에서 열교환기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광명시에 있던 상병준은 분업후 시흥시로 약국을 옮겨 변화를 가졌다. 뉴욕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 서

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9회 동기들



김 의 섭
(9회, 동기회장)

등으로 우리 동기의 자랑이다.

우리 동기중에 가장 팔자좋은 동기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가정에 들어앉아 주부생활을 즐기시는 안방마님들 이리라.

제한된 지면에 회원수는 많아 회원 개개인의 동향은 모두 열거할 수 없어 최근 약국이나 신변 등에 변화 있는 회원을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열거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부부약사로 그간 약국 2곳을 운영하던 강군모는 의학분업 이후 강남의 부인 약국을 폐업하고 신진약국으로 합쳐서 부인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다.

약사회장, 구의원, 녹색환경운동 등 왕성한 활동으로 봉사해 오던 권

하는 김상호는 지식 잘 키웠다고 자랑도 들었다.

우리 동기중 김영부가 두명있는데 작은 영부(英富)는 한일약품, 동광제약등을 거쳐 몇해전 풍납동에서 김영부약국을 개설하여 즐겁게 운영하고 있고, 큰 영부(英夫)는 지난 9월 사업겸 관광차 중국에 들렀다가 뉴욕 테러사건으로 미국가는 비행기가 없어 불시에 서울에 들려 김의섭, 노환옥, 나와 함께 식사하고 이를 머물고 급히 돌아갔는데, 지금 오하이오에서 대형 Beauty-Shop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로 이민간 옛날 명동의 유명 금은방인 정금사집 아들 김영중은 벤

황석은 지난 8월 동문회장단 방미시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오랜동안 일등제약에 몸 담았던 손승언은 최근 상도동 장승배기에 성부약국을 개설해 지역봉사에 나섰다.

송민부와 송춘무는 산호세와 씨애틀에서 각각 제몹을 하고 있다.

신우식-최보혜 부부는 한의사 아들을 잘 키우고 지금은 대문산자락에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시카고의 신원강은 세탁업으로 자리잡아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고, 우리 동기회 창립의 일등공신인 종로의 독일약국 오희영은 그간 열심히 살다보니 과로하여 건강이 예전만 못해 요양중에 있다고 한다.

위홍은 미국에서 병원약국 근무로 안정된 생활을 즐기고 있다.

우리 동기중 유일하게 제약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풍제약의 유병규는 원료약품 제조업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동기회의 기둥이 되기를 기원한다.

또 유일한 교수님이신 윤광로의 건투를 빈다. 대약 부회장으로 있는 이규진은 서울중앙병원 앞에 약국으로 사용할 상가건물 신축에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창시절 체육대회때 줄다리기에서 맨 앞에서 발차기(?)로 우리 약학대학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기덕은 뉴욕에서 Coffee Shop을 운영하며 뉴욕방문 했던 후배약사에게 용돈(?)도 주었다는 소문이 있다.

처남 매부지간인 윤현상과 이기섭은 모두 미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동기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승규는 약국을 폐업하고 운동하는 아들 뒷바라지에 부성애를 발휘하고 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한다.

뉴욕에서 서울한의원을 경영하는 이어지는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며 동기회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동기모임에 언젠가는 꼭 참석하겠다고 한다.

쉐링사장 등을 역임한 장성현은 제약업계를 떠나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ants인 S.H.JANG & Associates, Inc.를 운영하고 있다.

임창국도 캔사스에서 자리잡았고, 전원수도 오를랜드에서 약국을 한

하고 작년에 헌당예배 안내장을 보내 오기도 하였고, 금년에는 중국에서 개척교회 의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병원운영 관계로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L.A.에서 시온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성실한 성격의 최대영은 오래전에 마련한 목장 등 축복받은 생활을 하고 있다.

부천의 조정기, 과주의 최영근, 안양의 최영대, 안산의 방남규, 한일영등 이전 후에 성실하게 지역봉사



다. 광화문과 삼양동에서 약국하다 단국대 치대병원의 약국장으로 근무했던 정석태는 88올림픽 때엔 그동안 수집하여 오던 역대 올림픽 메달, 포스터 등의 올림픽 역사관련 전문가로 일약 유명인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L.A.에서 카이로프랙틱으로 척추교정 전문가로 활동하던 정창렬은 건강문제로 쉬고 있으나, 작년에 그곳에서 최대영과 함께 만나보았는데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반갑고 고맷다.

또한 그곳에서 목사님으로 활동하는 조광수는 훌륭한 교회를 마련

에 임하고 있다.

몇해전 쓰러져 의식없이 삼성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황태선은 현재 더욱 건강해져서 평택 분회장으로 봉사하며, 청소년선도에 헌신하고 있다. 나 역시 4년 전에 한독약품에서 정년퇴직후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여러 동기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저 세상으로 떠난 권창기, 박석연, 손승현, 송명실, 오룡, 류상기, 류석환, 차동현의 명복을 빈다.

어려움 속에서 형성된 중대약대의 전통을 기억하며

- 15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안 준 택
(15회, 동기회장)

쌀쌀하고 약간 스산하기까지 한 지난 설달 동짓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시며 우리 15회 동기회의 졸업 30주년 기념식에 모교 은사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생업에 바쁜 와중에서도 불원천리 모여준 동기들의 모습을 보는 기쁨이 배가되어 모임은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다.

오랜만에 교정을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파이프홀을 보니 30-40년 전 그때 진흙탕 운동장에서 신발이 쑥쑥 빠져가며 치렀던 입학식이며, 기회있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로 시작이 되었던 고 임영신 총장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의 일인양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즐거웠던 추억과 함께 한참 어려웠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진다. 내 경우에는 고교시절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 선생님의 성함이 기억날 뿐 다른 과목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의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데, 당시 우리를 지도해주셨던 교수님들의 성함과 존경스러웠던 면면들이 마치 오늘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생각해 본다.

아마 일부 동기생을 제외한다면 본인과 같은 기억을 공유하리라 생각하는데, 단연 제일 앞에 세워야 할 것이 다름아닌 약대 고유의 전통(?)인 그 유명하고 몹서리치게 하던 재시험과 ppt(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에 대한 압박감이 아니었을까. 4-5년 전 뜻한바 있어 모교 국제경영대학원에 적을 두었을 때 학창시절의 그 매서웠던 추억 때문에 오죽했으면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만 다녀왔을 정도이니 무슨 긴 말이 더 필요하랴. 재학시절 그로부터 자유로웠던 동기생은 많지 않았음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나 안다. 20대의 치기어린 우리에게 당시 은사님들의 엄격한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험난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터득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음을 진작 이해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하는 의문이 샘 솟는다. 외람되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갈 때는 기어서 나간다는 우리 중앙대 약대의 전통이 긍정적으로 확대, 계승되었기를 빌고 싶다.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지 않은 나약함이야말로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여건 속에서 우리를 더욱 좌절시키는 지름길이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행.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은사님들께 큰절을 올린다. 여전히 활기찬 기백으로 생활 현장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할 우리 동기들과 그 가족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동기회 모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지난 11월 25일 80학번의 '입학 20주년 기념 은사의 날' 모임을 모교 교수식당에서 가졌다.

20년 전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첫발을 내딛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시약냄새, 생약냄새 및 마우스(쥐)와 씨름하며 4년 동안 무사히 학점을 취득하고, 약사고시에 합격 약사면허증을 받아들고 사회에 진출했다.

80년도 입학할 때 약학과, 위생제약학과 합하여 120명, 그중 남자가 90명 여자가 30명이었는데, 어언 20년이 흘러 이번 행사로 동기들의 근황을 확인하고는 많은 세월이 무섭게, 빠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났구나 하고 웃었다.

입학할 때만 해도 무섭고 엄하게만 보이던 교수님들이 정년퇴임을 하시어 인자하신 할아버지로 변하셨고, 건강하기만 하던 동기 중 3명이 너무 일찍 고인이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어 우리 모든 동기는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다.

졸업 후 동기들의 사회진출 현황을 보니, 약대 졸업생답게 많은 동기가 전문직으로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만도 10명으로 타 학번에 비해 학구열 또한 가장 높은 기수가 아닌가 싶다. 이중 2명은 대학에 교수로 있고, 미국에 유학중인 김상헌 동기는 멀리서 소식을 듣고 회비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정성과 불타는 동기애에 감명을 주기도 했다. 그의 제약회사, 공직, 무역업 및 사업을 하는 동기 등 사회 다방면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참으로 흐뭇함을 느꼈다.

이번 모임에는 졸업 후 처음 보는 동기도 많았고,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마음을 전한 동기들을 보면서 학창 시절의 순수했던 우정의 힘과 가치를 더 한층 맛 볼 수 있었다.

오랜만에 빨리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동기들은 점심때부터 나와 같이 점심을 먹으며 쌓인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 놓으

니 끝이 없고, 일부는 당구장으로 올라가 학창시절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모임에는 멀리 밀양에서 정종수 동기를 비롯하여 60여명

(참석 못하고 회비만 납부한 동기 10여명 포함)이 참석하여 20년전 은사님들과 한자리를 하니 대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다.

공식 행사는 동문회에 300만원 장학금 전달, 81학번 후배에게 고참 선배님부터 내려오는 "청룡상 트로피"를 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식사 후 2부 여흥시간에는 오랜만의 서먹함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스무살 애들 마냥 웃고 손뼉치고 춤추고, 진한 게임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한참을 놀았다.

왜 진작 이런 자리를 자주 갖지 못하였을까 모두들 후회를 하는 표정들이었다. 이구동성으로 자주 모임을 갖자고 한마디씩 모두 하면서, 밤 12시가 되어야 마지 못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부는 새벽 4시까지 헤어지지 않았단다.

참 즐겁고 희망에 찬 자리였다.

끝으로 원규, 광희, 영희, 우종, 채욱, 숙희 및 유곤 등 많은 동기들의 도움으로 정말 추억의 "은사의 날 행사"를 멋지게 마쳤다. 모든 동기들의 건승을 빌며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고, 동문회 역시 날로 성숙되길 기원하며..

80학번 "은사의 날"을 맞이하고자



안 희 규
(28회, 동기회장)



땀칩이의 꿈, 막강 77학번

- 졸업 20주년 행사를 마치고



이 재 희
(25회, 동기회장)

40세 되던 해, 처음으로 열린 초등학교 동기회에 참석하러 밀양에서 좀 떨어진 시골을 찾았다. 초등학교 3학년말에 서울로 전학가는 바람에 당시의 모교를 약 30년 만에 방문했던 것인데, 첫 느낌은 학교 운동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좁다는 것이었다. 한 여름 피약벌에 오리걸음으로 기합을 받거나 운동회에서 달리기 할 때는 가도가도 끝이 없던 곳이 불과 축구공을 한쪽에서 뺏하고 내지르면 저쪽 골대에 다다를 정도이니, 하물며 학교 뒷산은 재 넘어 같은 반 아이들 집이라도 놀러 가면 돌아올 길이 걱정 될 정도로 험준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야트막한 500고지 정도의 아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우리 약대 77학번 동기들의 졸업 20주년 행사가 있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동기회 모교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초등학교 방문시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한 파이퍼홀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실험실내의 도구들과 컴퓨터 등등이 옛날 기억의 우리를 주눅들게 하면서 재학생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했다. 다만, 동기인 이민원 교수를 보면서 재학시절에는 그다지도 엄격해 보이시던 교수님들에게 더욱 친밀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원로에 속하시는 허인회, 임철부 교수님들이 그 당시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젊으셨던 것이다.

이미 은퇴하신 한덕룡, 김일혁, 손동현 교수님을 모시는 기쁨을 누렸다. 손동현 교수님은 예나

다름없이 꼳꼳하신 허리를 자랑하셨으며, 여흥시간에 흥허물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김일혁 교수님, 끝까지 학문에 대한 열정을 토로하신 한덕룡 교수님께 더욱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모교 교수로 재직중인 이민원 교수와 모교 인삼산업연구센터에 근무중인 고성권 박사에게 공로패를, 김광호, 조순현, 한덕화, 황명석 동기에게는 박사학위 취득 축하패를 각각 수여했다. 특히 멀리 거제도와 강릉에서 올라와 준 김선열, 이승정 동기에게도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린다. 여학생들도 이제는 중년의 티가 나겠지 했는데, 성남시 보건소의 정효정 동기와 마포구 의보약국의 신수경 동기를



필두로 아직도 소녀티를 그대로 간직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재학시절 여자 보는 눈이 너무도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음을 고백한다.

모든 공식행사가 끝난 뒤 옮긴 자리에서도 못다 나눈 이야기로 새벽 2시를 넘겼다. 신임 이내흥 회장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모임을 갖기로 의기투합했으며, 동기 모임의 발전을 역설하는 열정이 지나쳐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내쫓을 정도로 우렁찼던 이영익 동기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여자 동기들,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

내친 김에 이종인 동기를 추대하여 'CP 77'이라는 골프 모임을 발족시켰음은 또 하나의 성과였다. 구랍 12월에 경기도 동진CC에서 첫 모임과 동시에 남회를 가졌으며, 오는 3월부터 매월 1회씩 모임을 갖기로 하고, 가능한대로 은사님들을 모실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 77학번은 자칭 '뽕칠'이라고 부른다. 동기생들 하나 하나가 그만큼 소탈하고 꾸밈이 없다. 그래서 재학시절부터 학교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항상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했으며, 참여도는 다른 동기회의 추종을 불허한다.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이유불문하고 뛰어든 민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 '막강 77학번'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선봉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신임 이내흥 동기회장의 건승을 기원하며, 아울러 지난번 모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유영후 동문회장님, 이도익 학장님, 전·현직 교수님들,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들께 저희 77학번 일동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무꽃

강을바라며
 희고운기 번득이는 눈발이
 섬으로가는길을 지우고
 누워잠든 그림자도 지운다
 가슴을풀어헤친 눈이
 다리위의 사람을 끌어안는다
 숨소리가바람에 얽혀날린다
 사람이 나무로서서 눈을 맞는다
 사람이 움직일때
 다리의흰살점이떨어진다
 서있는듯 움직이는 발밑에서
 부서지는 작은소리가받힌다
 사람에게서 무언가하나씩
 다리아래로 사라진다
 굶어지는 눈발이
 갈기되어 하늘을흔들고
 다리위 나무에새배, 새꽃이핀다



천 수 이

- 13회, 시인
- 1986 「시와 의식」으로 등단
- 시집 「흑백 영화 한 컷」
- 푸른약국



영문학... 수학... 약학..., 변덕의 여로



이 광 표
(1회, 모교 명예교수)

인간의 애환은 아랑곳없이 세월은 물같이 흐르는 것,
40여년간 몸담았던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지도
어언 2년 반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인생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미루어왔던 전공 분야의 이론을 체계화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나는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마친 후 낮설고 물설은 전남 광주에서 의대 예과를 1년간 다녔다. 교수님들이 모두 훌륭하시어 강의마다 재미가 있었으며,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과연 ‘대학’이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원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진리의 도장’이란 것을 깊이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대학국어를 강의하셨던 분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란 명시를 남긴 김현승 시인이었고, 영어는 문교부장관 재직시에 뇌졸중으로 쓰

러지신 유기춘 교수님이, 생물학은 초파리 유전학의 세계적 석학인 백용균 교수님이 담당하셨다. 나는 백교수님으로부터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열성, 정열 등을 배웠으며, 그 분의 연구실은 밤이 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었다. 이가형 교수님은 독일어를 강의하셨는데, 이 분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능통하셨고 말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셨으며, 지난 10월에는 작고하여 시신은 서울대 부속병원에 기증하셨다. 한 유명교수의 육체가 사후에는 토막내어져 연구용으로 흩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젊음을 불태웠던 의학에 대한 꿈을 접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때의 실망과 낙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대학 2학년 1학기에 문리대 영문과로 편입하였으며, 운주형 교수님의 영국희곡론 강의를 들었는데 특히 J.M. Synge의 “Riders to the sea” (바다로 말타고 가는 사람들)란 작품을 통하여 어찌면 한국의 풍습과도 유사한 아일랜드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이창배 교수님은 영시개론을 강의하셨는데 특히 Robert Frost의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와 “가지 않은 길” 두 편의 시는 지금도 원문을 암기할 정도로 애송하였다.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경제적 무능으로 광주에서의 1년 반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전북 익산시에 있던 중앙대 분교의 약학과로 전학하였다. 모 은행의 창고를 개조하여 강의실로 쓰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강의실에 물이 새는 것은 물론 굵은 빗방울이 양철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강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근대 시조문학의 대가 가람 이병기 교수님은 국문학개론을 강의하셨는데, 음담패설에 유머를 곁들인 구수한 명강의로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3학년 때는 이리분교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 흑석동의 본교로 올라 왔는데, 이 때부터 학비는 내가 벌어서 충당하였다. 근로학생으로서 방과후나 아침 일찍이 강의실을 청소하거나 밤에 학원 강사로 나가 몇 푼 버는 때도 있었다. 잘

곳이 없으면 학우들의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새 우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 당시 경제사정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리 만큼 참담하였으나 학문에 열의만큼은 남달랐던 보람이 있어서 전남대 의대 예과에 입학한 1953년 2월부터 만 4년 만인 1957년 3월 한 해도 끊지 않고 약대를 1회로 졸업할 수 있었다.

흑석동 본교로 올라온 후에는 주로 암기위주의 약학의 교과목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학과 강의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미적분방정식, 위상기하학, 함수론, Laplace 변형 등의 강의를 청강하였다. 의예과나 영문과를 거치면서

닭은 영어지식은 그 후 7년간의 미국유학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지만 그간 유기화학, 물리화학 계통의 원서를 10여권 번역하는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수학과에서 배운 지식은 나의 주된 연구분야인 약물동력학, 확산론, 반응속도론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간의 애환은 아랑곳없이 세월은 물같이 흐르는 것, 40여년간 몸담았던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지도 어언 2년 반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인생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미루어왔던 전공 분야의 이론을 체계화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만 평

한번 멋있게 달려보자구요!!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절반은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상 용
(15회, 해밀톤관광(주)
대표이사)

지금도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번씩은 얼굴을 더 쳐다보곤 한다. 그렇다. 내 근본은 약학이다. 그래서 디오스 코리데스 선서를 내 기억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갈무리해두고 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가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고통받는 인류의 복지 행복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나는 약학과 관련한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 할 것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 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그 기억은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 약사의 길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서 이용하는 분들의 최대만족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호텔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승화되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반인들에게 호텔이란 개념조차 생소하던 1972년 부친에 의해서 창업된 해밀톤 호텔은 이제 150여 객실의 특급호텔과 함께 웬만한 작은 백화점에 버금가는 200여 업체가 입주된 쇼핑센터는 물론 복합관광산업의 특수성과 연계된 항공여행사를 아우른 해밀톤관광주식회사로 발전하여 오는 4월이면 창업 30주년을 맞게 된다.

이제는 선망받는 직종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복합관광산업, 그 화려함의 이면에서 절반은 외교관이라는 자긍심과 직업의식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에서 나는 영원한 약학도요 동시에 서비스업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현장경영자이다.

대인관계와 조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선택한 4년여의 제약회사 생활을 제외한다면 개국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후 약과는 관련이 없는 경영자의 길을 걸어온 셈이니, 좋게 본다면 인간사의 어려움에 물들지 않았던 비교적 순수한 시기에 ‘사람들을 위한다’는 약학의 기본이념으로

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었기에 이후 온갖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타고난 체력적 강인함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일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물려주신 부모님께 우선 감사의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호텔업계도 노사문제로 인해 용역회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회사는 용역을 포함해서 200여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합심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최고경영자라는 외형상의 화려함 뒤에는 직급에 해당되는 책임과 활동영역을 지닌 월급쟁이와는 달리 365일 24시간 내내 무한책임의 굴레에 둘러싸여 있는 고단하고 고독한 한 인간의 일면이 있다.

호텔이란 업종은 한마디로 복합한 물상이요 다중집합시설이다. 소소한 가정용품이며 소모품에서부터 각종 내구재는 물론 제조업에서 쓰는 기계류까지 없는 것이 없다. 또한 그 근본은 서비스 산업이다. 집을 나서면서 간이며 쓸개를 빼놓고 가야 한다는 명제는 새삼 이야기할 것도 없다. 자기보다 남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감

등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언제나 불평불만이, 어디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기 직종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애정이 없이는 결코 지탱할 수 없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경영상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나로서는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겉보기의 화려함만큼이나, 아니 그 몇 배 이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노력해야 하는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그들의 대답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좋아요"다. 이 말이야말로 다른 어떤 세속적인 부나 명성보다 나에게 값진 보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스스로 격려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남보다 뛰어난 점이 없는 한 젊은이가 나름대로의 투명한 기업경영을 모토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준수하면서 도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애쓰는 중견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음을 전 직원의 이름 앞에 무엇보다 감사한다. 장기근속자가 유달리 많은 회사임을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랑

스럽게 생각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 업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험하게 막 부러도 되는 정도로 대우하던 그 시절의 고생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선망받는 직종의 일부로 되기까지에 적지 않은 시

간이 소요되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과 최일선에서 접하는 기회가 가장 많으며, 따라서 그들의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일선 외교관의 직무와 비교한다면 지나친 실례가 될까.

자기가 하는 공부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이 전혀 관련 없는 일 또는 별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헤쳐나가는 의지와 노력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프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체일 것이다.

약국과 약에 관한 화제가 아주 낮설게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내 현실, 아직도 정정하신 몇 분 은사님들과 친한 동기들 중심의 인간적인 만남이 약사사회와의 유일한 창구였던 내게 약대 동문회보를 보면서 약사로서의 동질감을 회상할 수 있는 기억과 함께 주기적으로 지로용지를 통해 동문회비를 납부하는 작은 즐거움이 생겼음을 고백해야겠다.



▲ 제55주년 경찰의 날



▲ 용산경제인 협의회



▲ 한미 친선 협의회



▲ 회사 아유회



김창종 교수 약사금탑 수상

모교 김창종 교수(11회, 의약식품대학원장)가 지난 2001년 12월 1일 대한약사회 주관의 제28회 약사금탑 시상식에서 약학연구부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은 특수대학원 신설을 통한 약사직능의 확대·개발, 병태생리학 교육과 환자 지향적 약학교육 도입 정착, 질병의 병태생리나 약물요법에 관한 정보제공과 약사 재교육, 보건의료계의 사회약학적 활동 분석·발표 등 약학자로서의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약학계 발전과 약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4회동기회(회장 천흥기) 특별장학기금

4회 동기회에서 동문회의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 기금은 4회 동기회가 졸업 4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것으로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귀하게 쓰이게 되었다.



이양현 동문(7회) 국민포장 수상

인천광역시 약사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약사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법무부 인천지역 갯생보호 연합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범죄예방에 헌신하였고 현재 활동중인 바르게 살기운동 인천광역시 회장을 수행하면서 진실·질서·화합의 운동과 경로 효친사상을 널리 펼쳐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동문 동정란은 6천여 동문에게 동문들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장입니다. 직장이동이나 직위의 변동은 물론 주위 동문들의 경조사를 서신이나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 최종목(3회) 고문 11. 3 자녀 결혼
- 이송학(5회) 이사 12. 8 자녀 결혼
- 김영덕(7회) 이사 11. 2 자녀 결혼
- 김연희(8회) 부회장 1. 19 자녀 결혼
- 윤주섭(8회) 이사 10. 28 자녀 결혼
- 황공용(11회) 부회장 12. 22 자녀 결혼
- 김승태(15회) 이사 11. 23 자녀 결혼

부음

- 이문규(2회) 이사 12. 5 빙모상
- 최용선(7회) 이사 10. 26 부친상
- 지태현(20회) 동문 10. 31 모친상

인사



서울시약 약국위원장 및 강서구 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유영내(20회)동문이 강서구 약사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고재홍(7회) 식품제조업체인 (주)청수원 회장으로

약대 동문회 부회장과 유진제약 사장 역임 후 약업계를 떠나 현재 식품제조업체인 (주)청수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문들의 깊은 호의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 연락처 : 479-4087

삼진제약 제38회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탑 수상

삼진제약(대표이사 이성우(약12회))은 2001년 11월 30일 제3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00만불을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삼진제약은 국산의약품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매년 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국 등 세계 13개국에 항생제, 진통제 등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삼진제약의 조의환 부회장(8회, 사진)은 그동안 완제의약품 해외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무역협회상을 수상했다.



김수배 동문 제38회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탑 수상

의약품 수출 전선을 혼자 뛰며 개척해온 김수배 동문(21회, 총무)는 지난해 11월 제38회 무역의 날에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원료약품 생산회사였던 (주)우평에 근무할 당시 베트남에 플랜트 수출을 위해 방문했다가 동남아시아에 국내 의약품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만으로 수출의 문을 두드린지 7년만의 일이다. 지금은 강남구 도곡동에 (주)파마퀵이라는 작은 회사를 마련하고 후배 약사 등 4명이 근무하며 금년 500만불, 내년 1000만불 수출을 이룩하겠다는 욕심많은 약사 경영자가 김수배 대표다. 지난해 완제의약품 수출만으로 350만불을 기록했으며 원료의약품 수출분까지 합하면 400만불이 넘으니 충분히 가능한 목표인 셈이다.

행사



- 2001. 10. 25 중랑구 약사회(회장 : 박상용, 22회) 자선다과회
- 2001. 10. 27 도봉·강북 약사회(회장 : 신상직, 17회) 자선다과회
- 2001. 11. 10 12회(회장 : 이호섭) 정기총회
- 2001. 11. 17 25주년 "알바가족축제"(회장 : 박종화, 23회) 동아일보사옥 스카이라운지
- 2001. 11. 23 졸업 20주년 "성년의 밤"(회장 : 이재희, 25회) 프라자호텔 덕수홀
- 2001. 11. 25 입학 20주년 "은사의 밤"(회장 : 안희규, 28회) 교수식당
- 2001. 11. 25 중대약대 ROTC 창단(회장 : 노정익, 7회) 프라자호텔 덕수홀
- 2001. 12. 6 감국회 모임(회장 : 강옥희, 12회) 세종호텔
- 2001. 12. 19 교수송년모임 팔래스호텔
- 2001. 12. 22 졸업 30주년(회장 : 안준택, 15회) 교수식당
- 2002. 1. 8 동문회 신년교례 동문회관
- 2002. 1. 10 3회(회장 : 배영식) 정기총회 스칸디아비아클럽
신임회장 : 노인배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1월 15일 현재)

장 학 기 금

- ▷ 특별장학기금 4회동기회500만원
- ▷ 졸업 30주년 15회(안준택)200만원
- ▷ 졸업 20주년 25회(이재희)300만원
- ▷ 입학 20주년 28회(안희규)300만원

회장단 회비(연24만원)

유정사(10회), 정덕호(11회),
황공용(11회), 황문상(11회),
강옥희(12회), 이호섭(12회),
김종성(13회), 서국진(13회),
이규식(14회), 윤대봉(14회)

이사회비(연12만원)

1회 : 홍흥만
4회 : 이연수
6회 : 임성기, 김명기, 박정배
7회 : 김영덕, 박상용, 김정부, 박명신,
이양현
8회 : 김신자, 박찬수, 배영애, 문옥자
10회 : 이양원
11회 : 박상희, 오종철
12회 : 최병호, 조택상, 노덕재, 우준하
13회 : 안병식, 박동규, 문재빈
20회 : 이신규
21회 : 전명선
25회 : 조석현

일반회비(연2만원)

1회 : 문영순, 공희택, 조성애
3회 : 심한섭, 이인식, 정재수
4회 : 김태영, 정복영
5회 : 이명환, 김주원, 조휘제, 이승학,
강용구, 조복희

6회 : 양승훈, 장정희, 홍성호, 유관열,
박승희
7회 : 손종화, 이태윤, 윤태정, 김병익,
문승사, 한경석, 박무송, 김원지,
조길중
8회 : 오창준, 이명현, 조수현, 최영자,
엄규중, 허정자, 문홍수, 곽유환,
김호철, 이춘무, 박수일, 석길수,
박용문, 김형이
9회 : 이효식, 박종환, 김수홍, 최영대,
방승우, 이병호, 최백현, 정상모
10회 : 이장열, 전광선
11회 : 고승하, 이해일, 구자의, 이기호,
김정길, 남기택, 김재곤
12회 : 옥정남, 송두금, 오형철, 조정행,
이종화, 염윤기, 홍정덕, 우흥길,
이순우, 원은한
13회 : 조성도, 남궁박, 강태주, 최창조,
이종각, 김태중, 유희동
14회 : 김갑동, 현수홍, 김영남, 홍성철,
윤성하, 유형철
15회 : 이상용, 김윤빈, 박인호, 이명숙,
유태형, 정육주, 정현우, 김태영
16회 : 홍순경, 엄건희, 백승복
17회 : 김태범
18회 : 이원영
19회 : 김동희
20회 : 지태현, 이현희, 송열호, 이우상,
김영업, 허문영, 정동천, 구장림
21회 : 박제천, 안병현, 최순중, 김성만,

손재선, 이진경, 송태완
22회 : 심재호, 한만영, 오형영, 박미란,
윤영식
23회 : 양재업, 박종화, 최병일, 조병학,
이원길, 박희용
24회 : 함삼균, 김선화, 정혜선
25회 : 문태화, 이명제, 김완기, 정태영
26회 : 윤용혁, 이영준, 이창훈, 김정수,
이순아, 한갑현, 김안식, 황완균,
문형철, 라종우
27회 : 유재수, 최기선, 박수길, 김창식,
안희영, 장영희
28회 : 안희규, 이병천, 이숙희, 장원규
29회 : 강철선, 안성진
30회 : 장선숙, 이순구, 조민숙, 강민경,
박복자
31회 : 임기상, 유두중, 유영숙
32회 : 진창연, 이호숙, 윤준호
34회 : 노영화, 이 준, 윤덕수
37회 : 박준경
38회 : 백현준
43회 : 김효연, 강규태, 조미정
44회 : 이정훈

<기수모름>

윤혁기, 장동진, 박장규, 노상섭, 임형철,
배영덕, 조태원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약동문회

서청원 제11대 동창회장 취임



서청원 동문이 제11대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우리 동창회와 모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깃발을 치켜든 서청원 신임 동창회장의 취임 일성은 새롭게 도약하는 '中央'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청원 회장은 "중앙인의 밤, 등산대회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각 지역별 동문회 및 직장·전문직 동문회의 강화, 장학금 확충, 그리고 침체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기금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2002 신년하례 겸 시무식



모교 신년하례 겸 시무식이 지난 2일 중앙문화예술관(아트센터) 전시장에서 박명수 총장, 이상윤 법인사무처장, 서청원 동창회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인재 양성한다

중앙사이버대학 설립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권혁인 교수는 '중앙사이버대학은 디지털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게임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주)한빛소프트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판단돼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하용도 상임고문 1억 임성기 부 회장 3억 모교·동창회에 거액 쾌척



지난 연말 하용도 상임고문(제2대 동창회장)은 모교와 동창회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의 발전기금을 회사하고, 새해에는 임성기 부회장(약학3회, 한미약품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의약연구기금 3억원을 들고 모교를 찾아가 박명수 총장에게 "생명의약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전달했다(사진).

이밖에도 지난 연말에 국회의원 동문들이 한 학기 등록금 더 내기 운동을 펼쳐 2천만원을 동창회에 기탁한 데 이어 회장단을 중심으로 동창회 임원들의 발전기금이 줄을 잇고 있는 등 지난 연말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 동문들의 각종 기금모금 운동이 전혀 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2001~2002 농구대잔치 준우승



지난 1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1~2002 세원텔레콤배 농구대잔치 결승전에 농구대잔치 4연속 우승을 노리고 출전했으나 전원 프로출신으로 구성된 상무팀을 만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중반이후 상무팀의 반격에 밀려

결국 3점차로 준우승에 그쳤다.

한편 이번 대회 개인부문 시상에서 김주성 선수는 득점상, 박지현 선수는 어시스트상을 각각 받았다.



2002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월드컵경기,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해다. 우리 동문들이 전국 각지에서 중앙대학을 빛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대한약사회를 중앙인이 맡은 이후 전국의 동문들은 대한약사회를 이끄는 한석원 회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며 대약에 참여한 우리 동문들이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인의 긍지를 살리고 약사의 직역을 확고히 하는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황 공 용
(11회, 본보 편집인)

徐

정신없이 일에 쫓기다 문득 눈이 그리운 겨울이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어디 그리운 것이 눈뿐이라. 때론 징그럽기까지 한 사람이 불쑥 그리워지는 것이 꼭 나이 들 어감의 반증만은 아니지 싶다. 새해에도 소박하지만 그리움을 담고 동문회보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할 것이다.

明

며칠전 막내가 운전면허를 따왔다. 뭘데로 되라하는 심정으로 조수석에 앉아 흐르는 땀으로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미처있는 녀석의 운전솜씨를 지켜보았다. 어제밤 9시 드디어 여의도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경찰관입니다. 김태호군의 아버지 되십니까? 애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피해자도 걱정을 하는군요, 보험은 들었습니까?" 새벽에 돌아온 우리 가족이 그토록 아끼고 성능을 자랑하는 SM520의 운전석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억지로 위안을 해본다. "얼마나 다행이나...,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니... 쫘쫘~"

庸

한 장 남은 달력의 힘을 빌려 짐짓 외면해왔던 잘못도 잠시 반성해보고, 작심 3일로 끝날 지언정 새로운 각오도 다져보는 지극히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러나, 순전히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세금 뭉 수준과는 거리가 먼 시간강사로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하면서 잘 모르던 세상을 배우는 비싼 대가를 치루며 일상에서의 지루함을 탈출하는 희열을 잠시 맛보다.

洙

中央시
의혈인!
항상 우리의 뇌리속에 꼭 박혀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제 얼마 후면 졸업한 후배 새내기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다. 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여러가지 이겠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인데, 이 사회는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가진 자가 베푸는 자선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이다 보니 더더욱 내 영역을 지키는 싸움이 치열한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한석원 회장님께서 공격적 회무를 펴신다고 하니 의혈 중앙약대인이 한데 뭉쳐 힘을 실어드려야겠다.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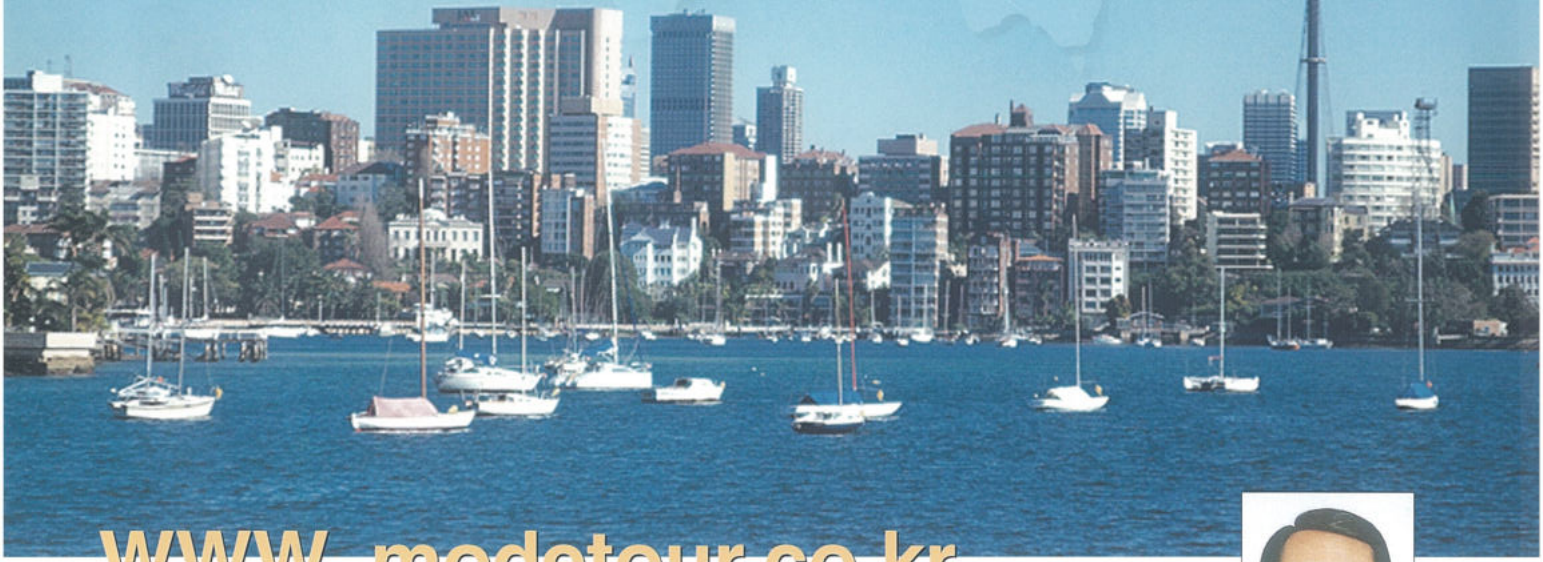
- 서 국 진(13회)
- 김 기 명(18회)
- 박 희 용(23회)
-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구를 모십니다

동문회 및 학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센스있고 품격있는 여행의 날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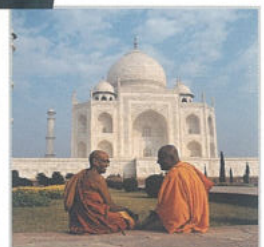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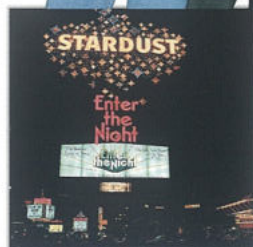


WWW.modetour.co.kr



대표 이양현(7회)

가능성과 꿈이 실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 주저없이 떠날 수 있는 곳
알파투어로 오세요.
당신의 일상에 활력을...
일탈을 꿈꾸는 당신에게
알파항공여행사가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